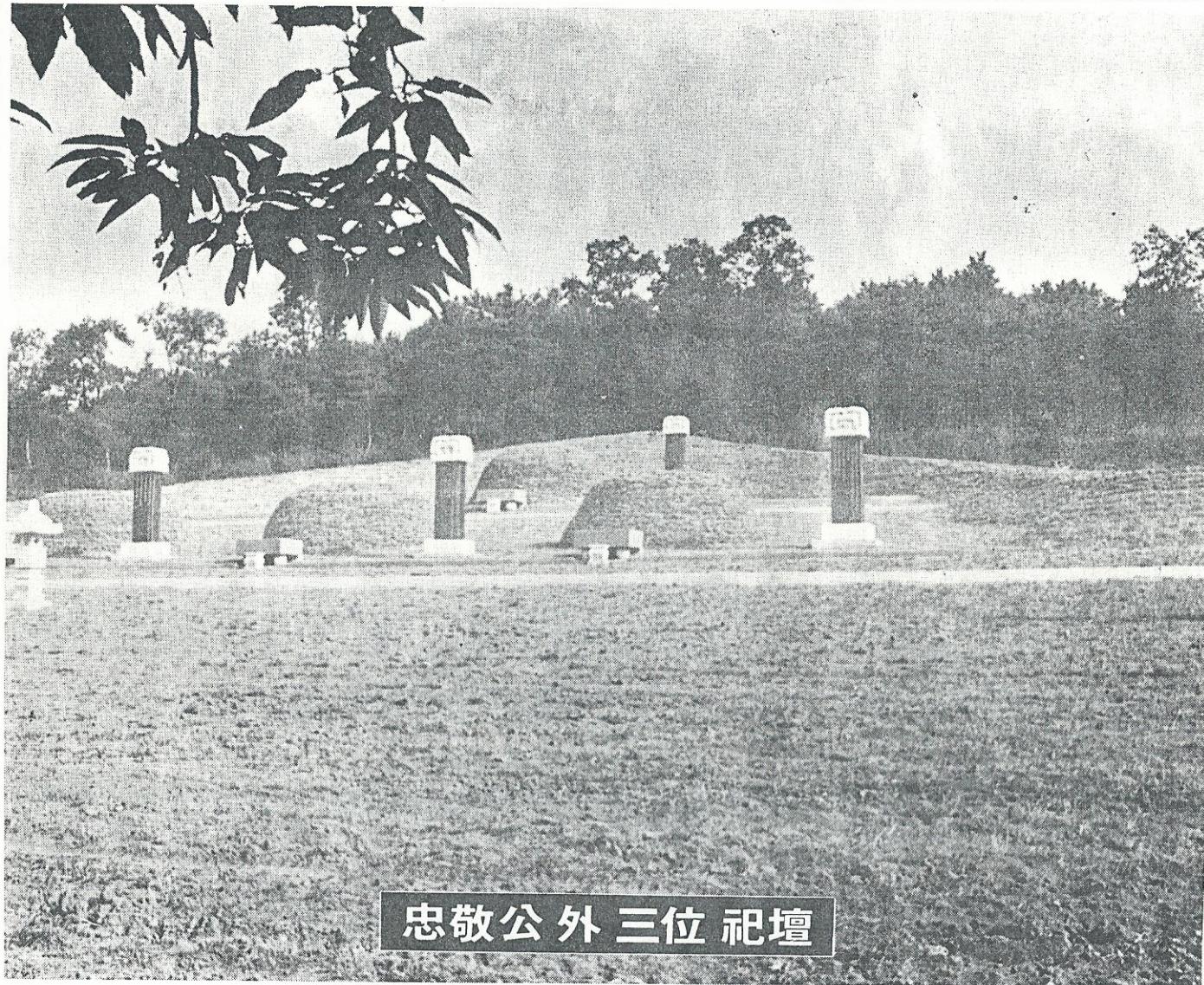


【1】 1988年11月1日(화요일)

坡州廉氏大宗報

第5號



坡州廉氏大宗報

發行人 廉東鏗
主幹 廉弘燮
編輯委員 廉敏燮
// 廉宗桓
// 廉炳斗
印刷人 李寧珪

坡州廉氏大宗報

우편번호 140-140
서울特別市 龍山區
西界洞 130-2
電話 715-6297



菲才淺學한 이 사람을 지
난 5월 7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대 대하여 감사기도 하고 일 면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저는 大宗會 창립이래 간 접적으로 행세마다 應分의 微意를 표해 마는 불과 2년도 채 못됨에
氏族에 따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宗親會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大宗會는 이별다 할 자산에 이 없이므로 부득이 전국적으로

命하여
온바
생각하면
여기로
온다.
우리
氏族은
전국적으로
넓어졌다.
7만
내외의
인구밖
에는
아되므로
많지 않은
일가끼리
우손우손
손에 손
을 잡고
서로
도울수 많았
다면
—도울고,
뿌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 가며
생활의
정도로
나누어 가면서
치복

正道 걸으며 最善

基 奉 <大宗會 會長>

을 도모하는데
민족親會의 참
다운 뜻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흔히들 요새는 산업사회
라 도덕이 떨어졌다
고를 하지만 이는 그동안
어딘가 멍이 들은 데가 있
어서 그런지 산업사회라 할
지도로 인간적인 기본노리
와 도덕은 변할 수가 없다
고 생각하며 우리의 경제
사상이 약탈로 韓民族의 자
랑이요, 힘이라고 생각합니

하나 간혹 회장이 도선
에 흘러고 또한 정식 결의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원
원 일부가 자기류의 일방적
적인 해석으로 회의 앞날
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허용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저는 大宗會의 전
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도
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
고자 하오니 전국 宗親여
러분께서는 우리 大宗會가
후손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
어주도록 합심협력하여 이
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

부리로 차에서 보고 나래서 진접 면서 다들 고개를 끄떡거렸고 떡 하드라는 말 들으니 강화는 주주와도 고 역사적으로도 곳이 모로 참으로 立選選擇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열씨의 빛 있던 존재를 알리는 것 만해도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祝
發
展

韓國河合電熱(株)

可法書士 廉 昌 勳

大(株)二和航空貨物
韓倉庫

代表理事表廉且祚



忠敬公 祀壇

坡州廉氏大同會沿革

會議名	年月日	場所	參人	席員	案件 및 審議概要
大宗會發足	1980. 7.15	楊州郡水同面	30		서울有志, 全國宗親幹部 參席下에 大宗會發足 決議 (서울會主催)
大宗會創立總會	1980. 11.11	光 州	84		定款制定 任員選出 ◇會長: 泰勳, ◇副會長: 東錦, 庚桓, 宗昱, 圭鍾, 麟模 ◇書記: 弘燮 ◇監事: 重燮, 凤哲
廣 告	1980. 11.29				동아일보에 ·大宗會 結成廣告
1次任員會	1981. 1.23	서 울			羅州에 梅軒先祖外 三兄弟분의 祭壇奉置 決議
1次理事會	1981. 4.19	楊州郡水同面	38		設壇事業을 爲한 모금
時 祭	1981. 11.1	羅 州			時祭行事
除幕式	1981. 11.2	唐津郡七良面丹月里栗邊村			廉傑將軍殉義碑 除幕式
除幕式	1981. 11.15	忠武市貞梁洞			宣武原從功臣彥祥事蹟碑 및 墓碑除幕式
2次任員會	1981. 12.16	서 울			泰勳회장, 辭退意思表示
3次任員會	1982. 2.24	서 울			第1回 定期總會準備
82年度定期總會	1982. 3.23	서 울	46		泰勳회장 辭退受理, 後任會長 東錦選出 設壇事業決算報告 收入 51,150,000 원 支出 51,327,000 원
踏 查	1982. 5月 6月 10月	楊平郡龍門面三成里			口傳되는廉將軍의 墓所를 踏查하였으나 物證을 發見치 못하였음
1次任員會	1982. 7.6	서 울			83년도부터 譜事業着手決議
2次任員會	1982. 11.2	서 울			時祭日 陰 10月 5 日을 阳 10月 9日 한글날로 變更決議 (將次)

會議名	年月日	場所	參人	席員	案件 및 審議概要
臨時總會	1982. 11.21	羅 州	52		時祭日은 양으로 10月 9日 한글날로 決議 副會長 麟模는 事業關係로 辭退. 族譜編纂準備委員長에 吉燮, 副委員長에 洪燮 任選, 都有司 洪燮 任選
3次任員會	1983. 3.5	서 울			大同譜 編纂準備委員會에서 委員會規約마련, 定期總會準備
83年度定期總會	1983. 4.16	서 울	65		副會長補選 洪燮, 吉燮, 東錦, 珍澤, 在熙 大同譜編纂委員會人選
任員會 呂族譜編纂委員會	1983. 5.14	光 州	25		大同譜 編纂委員會와 同運營委員會規約, 同事業計劃書 및 예산안 심의·통과
踏 查	1983. 5.15				任員陣 採藥山
懇 故 會	1983. 6.3 9.3	서 울			各任員宗親會長 大同譜編纂委員會關係者 族譜事業事務妥協
全員會議	1983. 10.8	光 州	이상파 동일		族譜 編纂委員會시행세칙 심의결의
時 祭	1983. 10.9				時祭行事
新年賀禮會	1984. 1.20	經 論 강 당	130		吉正議員선거자금 마련, 大同譜編纂案내
廣 告	1984. 1.28 2.7				서울신문 동아일보
任 員 會	1984. 3.28	서 울			族譜編纂事業報告 字權, 정관일부 개정안 제의 시제일 다시 음 10月 5日로 환원. 定期總會 준비

會 議 名	年月日	場 所	參 席 人	案 件 및 審 議 概 要
84 年度定期總會	1984. 4.14	서 울	73	정관일부개정전審議小委員會 구성 任員改選: 會長東錦, 曹무弘燮 등 재선임 副會長 增員任選 昌勳, 宇權, 在根, 南燮, 圭連任選 始祖 薛郊明의 鄭字는 일단 그대로 세대도 그대로(舊譜대로)
1次任員會	1984. 6.23	서 울		宗報發行決議。採藥山 墓所論議 사무실 마련에 대해 서도 논의
2次任員會	1984. 12.8	서 울		1985 年度定期總會
3次任員會	1985. 3.23	서 울		시조의 姓銜은 형인 자로 수정키로. 정관 일부개정안 마련. 사무실 마련 진조금 12,100,000 원, 정기총회준비 定一部改正決議始祖姓銜邢자로 확정. 副會長圭鍾逝去로 인하여 後任으로 瑞燮補選, 사무실 마련 감사대基奉外 9명에게 수여
所有權移轉	1985. 6.22			羅州門中 所有設壇이 위치한 林野田畠一切을 大宗會豆 移轉登記
宗 報	1985. 7.15			宗報 創刊號發行
1次任員會	1985. 11.16	光 州		大田·保寧 門中上系譜 審議
2次任員會	1985. 12.13	서 울		保寧 門中上系譜 再審
3次任員會	1986. 3.29	서 울		定期總會준비, 종무의 職位를 副會長으로 대우개선 宗報 第2號發行
宗 報	1986. 3.29			1986 年度定期總會
任員增員	1986. 4.19	서 울	60	弘燮 副會長兼 종무, 且祚, 鍾建, 敏雄 副會長 각각 선임。 採藥山에 관하여 論議가 있었으나 물적증거 불충분 으로 계속 연구· 검토키로 함。

< 3면에 계속 >

【3】 1988年11月1日 (화요일)

坡 州 廉 氏 大 宗 報

第5號



文化財 指定祭閣 (現在 重修中)

〈2면에서 계속〉

會 議 名	年月日	場 所	參 廉 人 員	案 件 및 審 議 概 要	1987 年度 定期總會	1987. 4.18	서 울	56	族譜편찬 功勞牌 授與：光州의 洪 燮, 吉燮, 감사패 수여：光州 東均 의 4명	反 駁 文	1987. 9.25	87.9.7 字 光州宗 親會 會長鬪 名 儀의 答辯書에 對 한 反駁文書 發 送		
1 次任員會	1986. 6.4	서 울		不實宗會 分擔金 免除 世訓家系審 議	1 次任員會	1987. 5.13	서 울		임여금처리건에 있 어 光州側의 誠意 가 보이지 않으나 그 래도 다시한번 원만한 解決을 시 도하기 위하여 東 鎬 顧問, 昌勳 副 會長에게 折衷權 限을 付與 하기로 決議	數 地 買 收	1987. 9.		神道碑 數地用土 地 247坪 家屋 2동	
宗 報	1986. 11.1			宗報 第 3 號發行						在京任員會	1987. 9.28	서 울	副會長 宇權으로 부터 大邱에 來 訪한 洪燮과의 對 話內容 報告	
2 次任員會	1986. 11.5	光 州		譜牒寄贈處 問題 等 尋議						任員懇談會	1987. 9.30	서 울	神道碑 復元事業 에 對한 中間報 告	
宗 報	1987. 3.20			宗報 第 4 號發行						理事選任	1987. 11.30		英燮, 在均, 鐘洙 善模 外 7名 理 事選任	
3 次任員會	1987. 3.21	서 울		定期總會준비, 大 同譜 편찬委員會 業務報告 및 同監 查報告, 族譜 편찬 임여금은 光州洪 燮이가 1分5厘로 쓰고 있는바 임여 금에 대하여 光州 側은 우리가 노력 하여 이루어진 것 이니 祭閨事業으 로 다 쓰겠다. 하 고, 其外 地域側 에서는 임여금은 全 國宗親으로부터 이 루어진 것이니 일단 大宗會에 送金 하고, 用途問題는 任員會 決議에 의 하여 執行하자는 相反된 主張으로 激論이었고, 本件 은 總會에 回付하 기로 하였음	催 告 狀	1987. 6.2			1次 催告狀 發付 對 洪燮	江華 行事	1987. 11.22	江 華	1,300	神道碑 除幕式과 새 設壇에서 時 祭行事
					贈 與	1987. 6.29			江華 哲宗 外家宅 敷地 4,721坪, 제 각 50坪 贈與받아 大宗會 소유로 등 기 했었음	2 次任員會	1987. 7.10	서 울		神道碑 復元事業 에 對한 經過報 告兼 決算 江華遺蹟保護管理 委員會을 設置하 기로 決議。 族譜訂正審議小委 員會 構成 決議。 定期總會준비
									位 東鎬 顧問과 昌 勳 副會長이 全州 會長 東贊을 통하 여 全州에서 光州 의 吉燮, 洪燮을 상면하여 타협코 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뜻을 이 루지 못하였다는 총무의 報告가 있 었음。 江華 哲宗 外家宅 敷地를 賦與받을 으로 해서 梅軒先 祖 神道碑 復元事 業과 이울리 이곳 에 設壇事業에 着 手해 가급적 금년 10月末까지 完成 目標로 하고, 소 요자금은 전국의 宗親 贈金으로 진 행하도록 만장일 치로 決議。 서울宗親會長 基 奉 副會長으로 選 任 敏燮 都有司 選任	1988 年度 定期總會	1988. 5.7	서 울	58	特別會計(神道碑 復元事業 및 設 壇事業) 決算報告 收入 : 70,485,000 원 支出 : 70,302,860 원 殘額 : 182,140 원 江華遺蹟保護管 理委員會 및 族 譜訂正審議小委 員會 幹事選任等 兩件을 다음員會로 回付하기로 決議。 同時に 임여금 處理件도 會長補選 : 泰勳會 長 病故로 辭退 後任會長 基奉(서 울會長) 選出, 神 道碑 復元 및 設 壇事業 本會에서 承認
1987 年度 定期總會	1987. 4.18	서 울	56	特別會計(大同譜) 決算承認, 大同譜 編纂委員會 解體 決議 現 東鎬 회장 을 정관상 종임을 못하게 되어 있으 므로 自動辭任하 고, 後任에 泰勳 選出, 副會長 泰 根選任, 임여금처 리의 건은 상기 87. 3.21 任員會時의 發言 重複으로 因 하여 激論의 연속, 부득이 다음任員 會에 다시 回付 하기로 決議, 族譜 事業 收支 決算額 總收入額 : 315,599,794 원 總支出額 : 205,069,443 원 殘額 10,530,351 원	在京任員會	1987. 7.20	서 울		神道碑 復元 및 設壇事業에 對한 豫算策定	※豫算決算은 每 定期總會의 錄音 省略하였음		必須要件이므로 記 作成者 : 善舅 弘 燮		
					催 告 狀	1987. 8.29			2次 催告狀 發付 對 洪燮	答 辯 書	1987. 9. 7		光州宗親會 會長 圓名號로 된 催 告狀에 對한 答 辯書 接受	



忠敬公神道碑文呴譯文

1. 定期總會

1987年4月18日 鍾路, 韓一館에서 代議員 77名中 56名 參席 傳聞宗親 20名 가. 表彰行事

◇大同譜 編纂委員會 功勞牌 授與者 (以下 姓氏는 省略)

▲常副委員長 洪燮 ▲運營委員長 吉燮

◇感謝牌 授與者

▲運營委員 東錦, 基善, 成烈, 能洙

나. 報告者

①一般會務報告: 弘燮 ②大同譜編纂業務報告: 能洙 ③一般監查報告: 圭連 ④特別會計監查報告: 留實

一案件一

▲第1號: 87年度 一般會計決算案 承認의 件 (原案과 같아) 決議

▲第2號: 87年度 一般會計豫算案 審議의 件 (原案과 같아) 決議

▲第3號: 特別會計 (大同譜) 決算案 承認의 件 = 收單委員들이 遺蹟地의 활동을 해서 보냈음에도 재차 현지활동을 하여 1백 6만 1천 5백 30원의 경費를 쏟았는데 대한 質問에 3項目에 對한 質問이 있으나 原案대로 決議

▲第4號: 大同譜 編纂委員會 解體의 件 = 오늘자로 解體하기로 決議

▲第5號: 任員改選의 件 = 詮衡委員會을 構成하여 會長에는 泰勳氏를 선임하고 그의 任員陣은 다음과 같이選任하였음.

▲顧問=吉正, 普鉉, 泰權, 東錦

▲會長=泰勳

▲副會長=庚桓, 昌勳, 在熙, 東質, 珪澤, 洪燮, 在根, 宇權, 丘祚, 鍾健, 敏雄, 泰根

▲副會長兼總務=弘燮,

▲監事=南燮, 圭連, 凤哲

▲第6號: 剩餘金處分의 件 = 光州 洪燮氏로부터 「剩餘金은 現在 本人이 保管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實績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 밀어주기 바라며 앞으로 責任 있게 증식 및 保管할 것이다」라는 發言이 있은 후 剩餘金處分案은

새로 선출된 任員會에서 審議決定토록 委任하기로 하고 現金保管 管理問題도 任員會에 委任하기로 決議

— 其他事項 —

가. 前任會長 東錦氏에게 功勞牌를 수여하기로 決議하였으며

나. 永川 採藥山에 對하여 吉正氏로부터 깊은 關心을 가져달라는 뜻의 發言이 있음。

2. 第1次 任員會

1987年5月13日 本會 事務室에서

이 만나기를 연락하였던 바 光州의 吉燮, 洪燮, 两氏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傳言이 있기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 그리하여 6月2日字로 剩餘金回收에 대한 第1次 催告狀를 光州 洪燮에게 發付한 바 있음.

— 案件 —

▲第1號: 梅軒先祖神道碑復元의 件 = 本會 副會長인 在熙氏가 神道碑 復元事業에 對한 다음과 같은 提案說明을 한다.

나를 받아 實은 이에 대한 登記를 이미 完了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手續 절차에 대하여서도 大宗會長外 몇분이 그간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江華라면 長湍과도 가깝고 歷史적으로 유서깊은 곳이고 首都 서울과도 근거 리이므로 여리가지 점으로 미루어볼 때 神道碑 復元地로서는 最適地라고 생각하여 이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設壇도 이곳에 새로이 모셔야만 되겠다는 뜻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對하여 任員一同은 때늦은 感은 있으나 참으로 좋

權氏로부터 大邱에 來訪한 洪燮氏와의 대화내용 보고

5. 任員懇談會

1987年9月30日本會 事務室에서

①神道碑 復元事業에 對한 中間報告

②誠金 2십만원이상을 받친 宗人에 對하여는 앞으로 獻誠碑 建立時に 신도록 하고 20만원이하를 받친분에 對하여는 宗報에 신도록 合議

6. 理事選任

87年11月30日字로 다음과 같아 選任하였음.

▲서울=英燮, 弘周 ▲光州=得洙 ▲釜山=鍾洙 ▲大邱=善模 ▲大田=在均 ▲全州=圭鉉 ▲水原=車澤 ▲陰城=炳斗 ▲春川=萬鍾 ▲江陵=相旭

7. 催告狀 發付에 對하여

①第1次: 87年6月2日에 發付

②第2次: 87年8月29日에 發付

③87年9月7日字로 光州宗親會長團으로 부터 東問西答式의 조첨을 確은 答辯書를 接受하였음.

④87年9月25日字로 87年9月7日字로 접수된 光州宗親會 會長團의 答辯서에 대한 非理를 지적하는 反駁文을 發送하였음.

8. 第3次 任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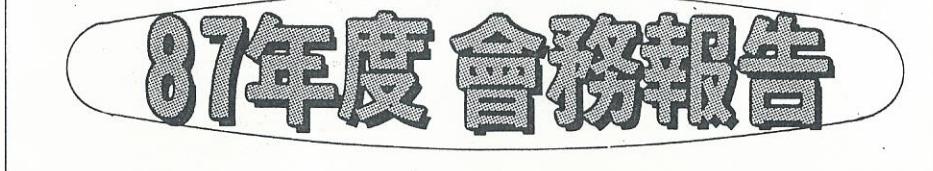
1988年4月9日 서울 天下壯士에서

— 案件 —

▲第1號: 87年度 決算案議의 件 = 原案대로 通過決議

▲第2號: 88年度 豫算案議 = 收入之部는 원안대로 通過 決議되었으며, 支出之部에 있어서는 祭費項目에 있어 離州, 江華에만 限定시킬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도 7개소의 祠堂이 있어 매년祭

〈5면에 계속〉



務室에서

— 案件 —

▲剩餘金處理의 件 = 지난 4월 18일 定期總會에서 任員會에 委任한 바 있는 本件에 대하여 진지한 討議를 하자 하였으나 87年4月30日字로 光州 宗親會長 吉燮 名義로 全國 坡州 廉宗氏에게 告함이란 文書中 大宗會의 存在를 무시하는 共同體의 本質을 막강한 매우 納得하기 어려운 内容에 接합바 있으나 그래도 다시한번 넓은 아량으로 光州側과 折衷하여 원만한 解決를 시도하기 為하여 本會 顧問인 東錦氏와 會長인 昌勳氏로 하여금 수고하여 주도록 決議한 바 있음.

3. 3次 任員會

1987年7月10日 本會 事務室에서

▲總務報告 (總務) = 지난 5月13日字 任員會 決議에 依하여 東錦, 昌勳 两氏가 全州 東錦氏를 通하여 全州에서 같

『우리 梅軒先祖의 神道碑 가 바로 以北 長湍에 所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 남북이 분단상태에 있는데 오늘의 現實에서는 그곳으로 가서 參拜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우리 孫子은 梅軒先祖를 敬慕 추앙하는 뜻에서 때늦은 署은 있으나 장

단에 가까운 곳을 物色하여

神道碑를 復元함이 마땅한우리의 道理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던 나머지 우리 發起人은 大宗會長 外 몇분과 事前에 相議한 바 전폭적인 支持를 받아 지난 6월 초에 大宗會長外 몇분과 長湍에 가까운 坡州 등지를 踏查한 바

이곳은 軍事境界線이므로 마땅한 곳이 못된다는 판단하

에 譜學에 署은 敏燮氏의 주

선으로 江華郡 仙源面 冷井里에 所在한 李朝가 哲宗大王

外家 廉門에게 下賜하였던 地方文化財土地 約 5천여坪

과 祭閣 약 70여坪 등에 대

하여 앞으로 大宗會가 永久

保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

는 취지에서 哲宗大王 外孫

側과 折衷한 바 좋다는 승

은 意見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의.

작業完了期間은 되도록 오는 10月末까지로 豫定하여 即時 착수하기로 하고 所要豫算是 집행부에 一任 大宗會 전세보증금 9백만원은 本事業에 轉用하기로 決議.

▲第2號: 副會長, 都有司選任의 件 = 87年9月7日字로 建立할 江華 遺蹟事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울宗親會長 基奉氏를 副會長으로 譜學專門家인 敏燮氏를 都有司로 選任決議하고 다음 總會에 追認을 받도록 하였음.

▲第3號: 理事選任의 件 = 未 選任中에 있는 理事人選에 關하여 意見交換이 있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選任하도록 會長에게 一任托록 決議

4. 在京任員會

① 1987年7月20日 本會 事務室에서 神道碑 復元事業에 對한 豫算實定을 하였음.

② 1987年9月28日 顧問 東錦氏 事務室에서 副會長 宇

高麗國忠誠序義同德論道輔理功臣壁上三
韓三重大匡都僉議門下侍中曲城府院君
謚忠敬廉公悌臣神道碑

神道碑文(上) 哭左 後面の羅丈

1

忠故公神道碑文高麗憲王八年壬戌成化韓山伯李禧先生의奉教撰碑韓城君韓脩先生의篆并書を京畿道長湍에建立되어 있었습니다. 二五動亂의烽火 속에 蔭損亡失를 겪은 뒤에 1922년에 烏石에 建立되었습니다.

〈4면에서 계속〉

亨을 하고 있으니 이곳에도 理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釜山提議) 大宗會의 實情은豫算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資金事情의 압박으로 因하여全般的인 예산집행이 어려운狀態에 있으므로 原則적으로는 收容하되 今年度에는豫算과資金事情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努力하기로 하고 지출지부를 원안대로 通過決議

▲第3號: 江華遺蹟 保護管理委員會 設置의 件=취지에異議가 있을수 없으므로 原案대로 決議

－其他事項－

①族譜訂正 審議 小委員會 설치의 件=既司 發行한族譜 내용중 부분적으로 訂正을 要하는部分이 있다고여겨지므로 (光州提議) 이에 對한 기구로서族譜訂正 審議小委員會를 大宗會長 主管下에 두기로 하고 委員에 能洙, 東珣, 秀東, 敏燮, 寛燮, 圭三, 在根, 曾順을 選任하였다.

이외에도 장차 諸般與件이

許容하는 범위내에서族譜를增版하기로 하는데에 合議를 보았음 (大邱 宇權氏 提案)

②光州 洪燮氏로 부터廉門遺族顯彰事業 現況에 對한 간략한 說明이 있은後 그간剩餘金으로 因하여 物議를 일으키고 있는點 罷免하다는 論

설단사업이 그간 計劃한대로推進이 되어 87年11月22日정오에 全國各地의 宗親 1천 3백명이 參禮한 가운데歴

史的인 大行事를 치렀으며이어 이곳 江華에 새로 모신梅軒公 外 三兄弟분의 祀壇에 일제히 參拜하여 敬祖의 뜻을 정중히 表示한바 있음。

11. 宗報 發行에 대하여

今年度에 計劃대로 宗報를 發行코자 하였으나 江華에 神道碑復元 및 設壇事業의 거대한 事業 수행으로 인하여財政 및 시간적으로 채 손을쓸수가 없어 부득이 發行하

婚式

▲東鎬氏 아드님 = 1988年1月29日 태극당 禮式部에서 結婚式

13. 結言

87年度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全國宗親의 舉族의인 賦金 約 6천만원으로서 착수한지 불과 4個月만에 江華에 神道碑復元과 設兩大事業을 성공리에 끝마치어 後孫들에게 先祖에 對한 敬祖思想을 고취하는 훌륭한 教育場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게 되었음은 우리들의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大宗會 運營은 일정한 基金 없이 각 지방종친회의 分擔金 만으로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할일은 泰山 같은데도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이오니 全國宗親께서는 本會 育成・發展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積極적인 參與意識으로 他氏族에 뜻지않는 특특한 大宗會가 되도록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87年度 會務報告

②

過發言이 있었음。

③江陵의 在根氏로 부터江華設壇에 清康公碑文中에 미비점을 지적하자 實은族譜內容대로 한것이나 앞으로 文獻을 세밀히 찾아 보아서 미비점이 發見되면 시정하도록 하였음。

9. 神道碑 除幕式

江華의 神道碑復元事業과

10. 江華 哲宗外孫宅 道指定文化財 指定

83年9月13日字로 道指定文化財 第32號로 지정되었고, 88年度에 6천 7백만원이 現建物 보수비로 簿定되어 금년 5월에 보수에 착수하기로 되었으며, 根本의인 復元事業은 本會에서 앞으로 銳意 推進함이 可하다 思料함

지 못하게 된점 罷免하게 생각합니다. 新年度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發行코자 하오니 널리 諒察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任員 子弟 結婚式

▲泰勳氏 따님 = 1987年10月31日 동신교회에서 結婚式

▲珪澤氏 아드님 = 1987年12月24日 水原禮式場에서 結

금상(今上) 九月 일술년 三

현(顯)은 문묘(文廟)에 선

이 공(公)을

네리고 화립(

에 중국조정에 정하여 나와서

부원군(曲城府院君) 이나이(李南怡) 19세로 병년(公卿)

상(宰相)이 되었으며 휘(信若)은 명옹(明忠)으로

화(威福)를 놓았고, 그가

간하므로 풍(風)이 극력

전통정법(征東省郎中)이 되어 그때 노동료(同僚)들이

대부(大夫)들이 놀마다(문앞)에 와서 경과를 보내어 손들이 마루에

아래에 기도하며 하지 않는 일

하고 사랑해 돌봐줄이 상례와 같

지 않았다. 토지와

제한(制限)이 있었으며 그가

탕약(湯藥)을 발하였고, 위와 아래에 기도하며 하지 않는 일

하여 그의 집에 자문하는

수리를 보고 기이

하여 그의 집에

네리고 화립(

이 없었다. 일금은 중판(中官)으로 보내어 문병하고 약과 술

을 내리었다. 아사람이 할수

하지 않으면 밤길은 대신(大臣)

비에 관계된 소송(訴訟)은 모

에 청탁(請托)하고 간접하였다. 그때 노동료(同僚)들이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리를 있으므로 충종왕(忠肅王)이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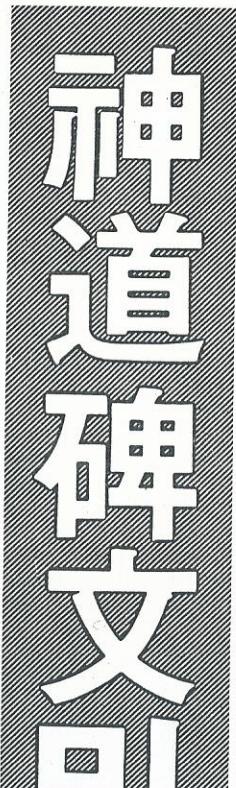
을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이부사(銀青光祿大夫門下侍郎平

제정(興法佐理功臣暨上三韓三重大

이름난(公卿)들이

를 보내어 그가 수(壽)를 누림



막관(幕官)이 되어 함께 국정을 짜하였으니, 내가 있 할수 없음을 두려워한 까닭에

를, 『염모(廉某)』는 고려의 대選擧를,

『염공(廉公)은 전선(誼
을 말한) 것이 다섯번이나

않는 것을 미워하여 일금에게

는 오를에 비록 본국에서는 일
찌기 범하지 않았으나 삶에
(常例)로써 돋날수는 없다.
하고 이에 광정대부 삼사우사
갑오년 찬성(贊成事)로
(賛成事)로 불직시켰다.
정월廿일에는 공예계단
년에 회를 베어다 총애하였다. 병신
기씨 (畜氏)를 베고 공

것만 일찌기 사사로운 응례를 했던 나 혼원(嫌媛)으로써 중대광(三重大國)을 삼고, 인하여 곡선백(曲城伯)을 봉하고, 그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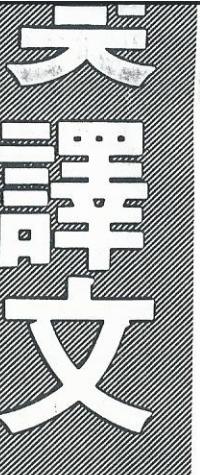
성우의 동료보리공신 벼상삼한 (公)에게 명하여 북쪽지방에 군사를 편성하였다.
성우군 (匡靖大夫)言右使上護軍
을 제임하였으며 이듬해
은 중대광 (重大光)을
[加資]하고 수성
[加資]하고 수성
역대공신 (一
誠守義同德輔理功臣上三
誠誠翼對功臣)의 호를
나리었
국大都議政左承判軍司上護軍
부사사 상호군 영경령현전서 (端
더니 대장 임당 (印璫)이 제
마을대로 부부로 그의 부정 (부정)을
副將) 강중정 (姜仲卿)을 죽이면서
여기 묻혔다 (邵氏後集)

종족(宗族)이 비록 많아나영
화스럽고 종묘한 관직(官職)은 소하므로 염금한 공의 아들과
에 있는 자가 없다. 대체로 담(淡淡)하여 육심이 없는 뜻을 신도를 풀할수
이다. 하였다. 절은것 말하였으나 공이 되어
하니 일금이 지키는 바를 굳게 여기에서 더욱 광

에 간부(官府) 되어 본래(本來) **封侯**(封侯) 되어 **본제(本城)**을 신하였었다. **울란선(烏蘭선) 紫羅城**의 전역(戰役)에서 여러 장수들은 군의 체제(節制)를 받지 않고 사람을 많이 죽이기 이지 못하였다. 신도이에 더러 공을 촉하자 이를 예기하였고, 공에게 보국(輔國)이

경강(臺綱)은 마땅히 훌륭한 사람이다. 공(公)이 말하기를 「대(大)는 그 여름에 채정승(賈仲)을 어난 까닭을 물자. 공이 기서(氣死) 나라를 떠나고 한(韓)에 살았다. 그는 한 대의 일질(人傑)이니 청평(請兵)하고 복직(復職)을 했는데 그를 피하자 공(公)이 그를 놓았는데 그가 말하는데 나의 배를 알게 되었다. 그 것을 알고 뒤에 그에게 하직(退職)하기를 했지만 그의 학문을 훌륭하게 증여하였으며, 각각의 학자를 훌륭하게 하였으며, 그 일방(一方)에 사전(故)이 있다.

우령에게도
가지 않도
니 아니었다
라는 두 글자를
봉용(封邑)하고 친히 열
굴을 그려 하사하였으며, 광의
딸을 군중에 들어 신비(慎
妃)라고 하였다. 부인(夫人)
권씨(權氏)를 볼하여 진한국



히 담번에 도원한 (都元師) 그해
겨울에 쪽의 벼정을 진압하게 하였다.
임금이 절월 (節鉞)을 주고 또
말하기를『공기 간 뒤에는 나
는 복무로 돌아보지 않았다.』
대답하기를,『신

공경하고
있으며, 또한
칭탁을 하

제상에게는 공정하고 수령에게도
（禮貌）을 지었으며, 또 한가지 일도
함께 사사로운 칭탁을 하지 아니했다

이는 볼록(封邑)하고 친히 열
물을 굽어 들어서 심비(慎
妃)라고 하였다. 부인(夫人)
권씨(權氏)를 봉하여 진한국
대부인(辰韓國大夫夫人)이라고 하
였고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
하였으므로 부인에게 볼록을 주
었으니 전례에 의한 것이다. 그
뒤 종자(仲子) 문하평리(門
下評理)가 되니 당시 세상에서 부
려워하였다. 제축년에 공을 헌
하시중(門下侍中)으로 기용하
였고 위계(位階)와 함께 윤전
과 같았다. 판개성감(忠貞冠
곡성부원군(判開城監春秋節
曲城府院君)으로 가자(加資)
하니 대개 촠애(寵愛) 가지
극하였다.

**壁上三韓重 大
改 城 候**로
개임(改定)되었을 때, 일제(日帝)는 그를 「**沿用**」(沿用)하고, 그의 성은 「**沿用**」(沿用)되었고, 그의 이름은 「**沿用**」(沿用)되었다.

여 청주(淸州)로 옮겨살았을 때, 위하여서는 공(公)을 영락
은 시중(侍中) 윤희(尹熙) 사(餉門下事)로 삼았으며 또
과 이암(李巖) 꿈과 더불어 영서연(領書筵)으로 삼았으니
종(隨徒)하였다. 다음 해 三 五세(世)에 걸쳐 원로(元老)
에 또 꿈을 시중(侍中)으로 엮기 때문이다. 을묘년 정월 초

기용
起用 히였으나 열마
烈馬 닷셋날
일임이 삶을 마치고 정
당되어 도전 삶을 당하여 사
사하였다. 을사년에 일임이
신신 신신
전(正殿)에 남시니, 재신
재신
하였다. (辛巳)의 말에 따라
내쫓겼다.
나를 쫓겨나 하였는데 신
신
공이 첫머리에서, 「임금되기
어

神道碑復元哭 設壇事業誠金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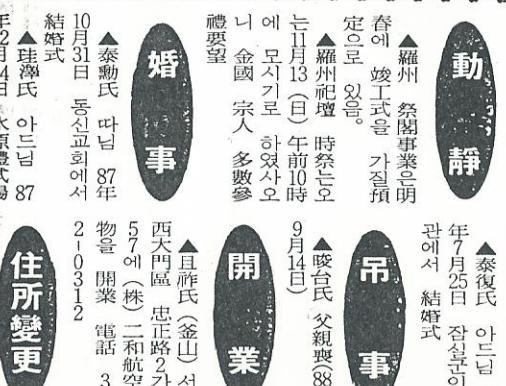
所	屬	姓名	誠金額
大宗會	顧問	泰勳	10,000,000
"	顧問	東鏞	9,000,000
"	會基奉	奉基	19,000,000
"	副會長	昌勳	6,500,000
"	都有司	敏燮	1,500,000
"	副會長(總務)	弘燮	500,000
"	副會長	庾桓	1,000,000
서울宗親會	顧問	澤龜	300,000
서울宗親會	漢榮	漢榮	200,000
서울宗親會	周順天	弘周	700,000
서울宗親會	順天	順天	200,000
"	"	正一	500,000
"	"	基朝	500,000
"	"	炊斗	500,000
大宗會	顧親	普敏	1,500,000
大宗會	親會	洙敏	100,000
"	"	壽海	800,000
"	"	漢淳	200,000
"	"	昌燮	500,000
"	"	洙漢	1,000,000
"	"	寬燮	200,000
大宗會	副會長	泰根	1,000,000
"	理事	英燮	1,000,000
서울宗親會	副會長	泰復	500,000
서울宗親會	東秀	東秀	500,000
大宗會	顧問	吉正源	500,000
大宗會	親會	清源執	100,000
安	"	煥執	400,000
서울宗親會	"	鎮燮	100,000
서울宗親會	"	鳳基	100,000
서울宗親會	副會長	峻基	1,000,000
서울宗親會	"	永燮	50,000
"	"	長길	30,000
"	"	周翼	30,000
"	"	영길	30,000
"	"	덕모	50,000
"	"	定敏	50,000
"	"	尙善	100,000
"	"	善善	100,000

電 州	宗 親 會	相 根	200,000
서 울	宗 親 會	덕진	100,000
"		용복	50,000
"		대길	50,000
"		淸朱	300,000
"		대운	5,000
"		天文	30,000
"		千山	10,000
"		재만	50,000
"		규홍	200,000
"		鐘薰	100,000
"		泰楔	200,000
"		충��	100,000
"		태수	30,000
"		경환	30,000
"		화영	30,000
"		화인	40,000
"		화성	30,000
"		화종	30,000
"		화천	30,000
"		吉男	30,000
"		大學	100,000
"		銀山	500,000
"		成福	100,000
每 軒	親 睽 會	春鳳	1 100,000
		垂山	62,785,000

釜山宗親會 且祚外多數		3,050,000
大邱宗親會 幸權外多數		2,650,000
大田宗親會 鍾建	2,000,000	
" 在均	1,000,000	
" 公勤	500,000	
" 印燮	500,000	
" 承洙	250,000	
" 圭弘	250,000	
水原宗親會 珪澤外多數		5,000,000
江陵宗親會 在根外多數		1,300,000
陰城宗親會 在熙	2,000,000	
" 炳斗	2,000,000	
" 300,000	300,000	
春川宗親會 萬鍾	600,000	
江華宗親會 曾順外多數		500,000
汝山宗親會		500,000

族譜 편찬사업의 잉여금由
一千一百萬원大宗會入수
88年10月12日 忠南유因한
성에서 開催한 任員里
事會에서 담금과 같이
決議하였다.
즉, 族譜編纂事業으로
키워졌다.

大宗會消白雲



이용고 한쌍의 절은
이가 탑 앞에 서더니
나에게 사진을 찍어달
라는 부탁을 한다. 나
는 그 젊은이에게 이
렇게 물었다.
『이 탑이 그려사하지
요?』
『그렇습니다. 학마리로
웅장한 맛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모
습은 시끌 산언덕 고개를 넘다가 기품 있
는 할아버지처럼 만난 모
습이 그런 점다운 생각나는 문묘요.』

寺名인 것이다. 廉水益
은 우리의 祖上이다.
바로 廉悌臣의 祖父가
되시는 분으로 그 南
溪院石塔에는 우리 先
祖의 열이 솟아 내려
오고 있는 것이다.
그 石塔에 대하여 高
麗名賢 牧隱李樞은 牧
隱集卷十八 戰南溪聰曰
座라고 하였던 것에 다음과
같은 詩가 있다.
城中衆水此同奔 大雨
年年灌入門
塔以施茅蒿百天
宛在水精闕

依然三過門前路 雜露
聲中獨坐禪
전기편 엉울에는 외
발과 베 심흔 논이었
흘은 잣나부는 울창
하계 우거져 있네
우연히 세번이나 절
문 암을 지나가니
무상의 세월속에 흘
로 앓아 선만 외고
고나. 이 詩를 지

그때의 論 詩가 되었을 때
로 위의 人生의 無常을
느낀 詩想이바
는 환상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에서 塔éri 王輪寺
를 떠온 禪 외
소리에 無 것이니
常를 「廉民」

이지만 내가 塔를 칸
기전 나는 그날 아침
부터 문황궁보부 안에
있는 문화관리국과 박
물관 실루 최급자를
나 두 가지 자료를
아보았던 것이다.
하나는 七層石塔
을 옮길 적에 나왔다는
妙法蓮華經七冊이었고
다른 것은 七層石塔

부는 塔身과 다른것으로
는 관광객은 대개 가이
곳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다. 그리고는 사진을 찍기
기 마련이다. 내가 서
성거리고 있을 때에는
십여명의 일본인 관광
객이 사진을 찍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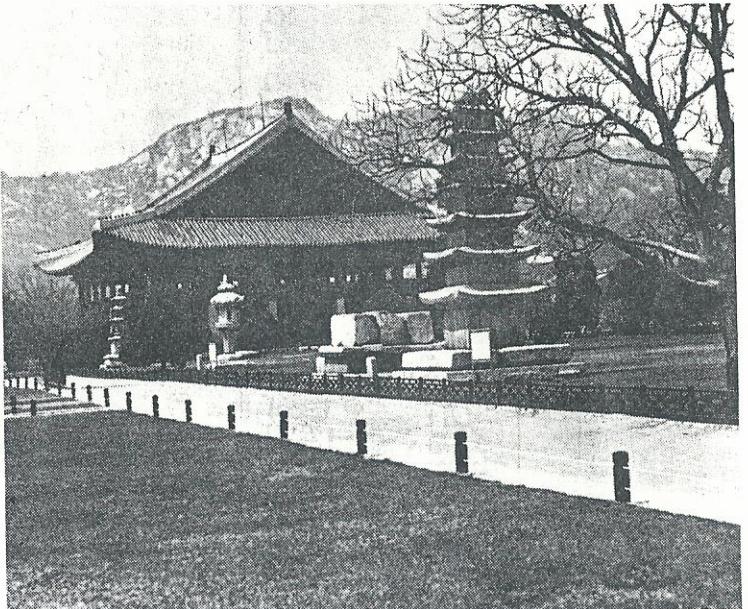
己身不逢九橫速脫三
界盡未來劫作大佛事
亦願一門昌盛無諸病苦
無盡法界生亡具證菩提
者正議大夫宿直司右承
旨興威上將軍判大府知事
廉承益이라고 쓰였다
나왔던 것이다.廉承益
이란 忠烈王 때 重臣
으로 忠烈王 二八年에
사망하였고 있다. 또
그 冊에는 다음과 같
이 記錄된
부분이 있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capturing a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al complex at night or in low light. The scene is dominated by several large, multi-tiered buildings with curved roofs, their intricate details partially obscured by shadows. In the foreground, a paved area with low walls and small pillars is visible, leading towards the main structures. The overall atmosphere is one of historical grandeur and quietude.

◇南溪院 七層塔（景福宮에 위치）

파란 가을 하늘은 편
層塔을 배경으로 바라
보는 운치가 더 아름
답답 주변을 맴돌고
기만 하던 나는 솔처럼
그 자리를 떠나기
가 아쉽다. 답아래를
기둥에는 이렇게 새겨
져 있다.
〔國寶 第100號〕
그리고 그 밑 표지
판에는 다음과 같을을
이 기재돼 있다.
「이탑은 원래 開城부
근 南溪院에 있던 것
을 一九一五年에 이곳
으로 옮긴 것이다. 雄
법등 建한 기품과
복색을 純新羅塔의 영광을
높이 받은 高麗석탑의 나태하고 고요한

「그렇기 때문에 일본 출몰부대 개성 남제원 이란 곳에서 이곳으로 옮진 것이 아니겠소?」「그럼 이 탑에 대한 역사를 아시나요?」「나는 그 절은 이에게 이 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자 이 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開城府 立博物館의 었던 고 belang著(松都의 古蹟)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이 탑을 속 물로 둘러싸고 그 탑에서는 妙法蓮華經七冊에 이 나왔는데 그 卷 七 후尾에는 特爲 國王宮主 莫滿災厄 才潛消 國土大難 幸及 兵」



◇南溪院 七層塔（景福宮에 位置）

「廉居和常樂」

본하는 恭愍王이下
賜하였다는 敬憲公梅軒
先祖의 賦하는데 罷倦을 찾아보았다
있었다는 면서炒학인해 보이다.
보이다는 또 다시 찾아볼것

先祖얼 어려

廉悌臣公祖父廉承益公의作品

南溪院이란 石塔 所在地의 寺名

서리고
문호자
관련어

여고
문화재
관리국에
서
문삼 1-7-2-1-2-4-6
(1980. 1. 17.)

다음에는 先祖의 遺
像인데 이것은 坡州廉氏大同譜 遺福 事蹟
의를 근거로 나는 밤
물관 유적부 면구네를 전히
없었다. 수가 발전할 거쳐 보았고

을 시간이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탐험
잔디 위에 주저앉으나
는 좀처럼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아
끓기
가
쉬었던 것
이지요.』
그
부도암은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國寶第一〇四號
法寺廉居和尙塔』
傳與
이
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번
번

『부럽습니다. 그럴게 간 뿌리가 있다는 것이 한 없이 부럽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청년 이 절정이 담지 않게 큰 이유는?』
『저는 뿌리가 없습니
당 그것이 늘 한이 되



廉仁洙

塔도우리 祖上의 所產

사무원이 한시간 정도 찾았으나 역시 나를 찾았다. 그러나

똑처럼다.
이 두 가지의 풀리지
않은 문제거리를 뒤로

그것은
이 근방 어
서서있

『신라시대의
塔을
찾으시는군요. 그
때 해 전에
밥풀

을 박물관 미술부에 들
려 부제 1774-3-
5 94 (1980. 4.
17)

여사원은 나에게 미술의 기증 증여 두 부분을 들춰보이며 「이것은 무엇인가 착 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미우

나 이 아도 바보는
그때 나지 바보는
문제가 일어서야 많았어.
남아 나에게는 했다.
있 있 험에 그러니
리 게 있는 난 않고 탑이다.
되 있다. 사부 관리를 그 세 바퀴를 보이지
었다. 소에 근본을 지치지도 않는 것

榮光과悲哀의歴史함께서린
貴重한 뿌리 계속해 찾을터

어려서였다. 갑자기 듣다. 뜰씨도 점심 사먹는 하고 오후 4시가 활았을 때 넓어

主幹의 당부

①本報發展을 爲하여 史話 美談 隨筆等讀者 여러분의 량은 投稿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②本報는 서울地區를 제외하고는 地方宗親會를 通하여 配付되고 있으니 迅速公正한配付 바랍니다.
③다음 第5號 宗報發行은 来年 定期總會前에豫定하고 있으니 많은聲援 있으시기 바랍니다。

編輯後記

本報는 年 2 回
發行計畫이 있으나
지난 87年3月20日字 第4號發刊
後事情에 의하여 1年7個月 만에
發刊하지 못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합니다.
이번號는 主로 江華의 忠敬公 神
道碑와 設壇을 紹介하는 내용으로
편집하였으며 다음號는 羅州祭闈에
대한記事를 실을 計劃으로 있음
니다.
今番號 發行에 물심양면으로 협
조하여 주신 本會 東鎬高門, 基奉
회장, 昌勸부회장과 且祚 釜山會長
에게 謹이 감사드립니다.